

시설원에 산업의 발전 방향

정 순 주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우리나라의 원예산업은 UR협상과 관련된 국제정세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촌경제, 농업인구의 고령화, 공동화되어 가고있는 국내상황과 맞물려 실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많은 농민들은 우리의 농업이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몇해동안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농민과 농업관련당국, 그리고 학계 등 요로에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실제적 대응을 해가고 있으나 뚜렷한 묘안이 서지않고 이를 지켜보는 모든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중 농어촌 구조개선의 추진 체계개편사업으로는 구조개선사업이 농어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율 추진 방식을 정립하고 사업추진과 평가의 공개화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도작위주의 농업에서 원예와 축산분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원예중에서는 채소와 화훼 그리고 과수의 시설재배에서 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시설원예중 현단계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채소이며 다음이 화훼 그리고 과수분야이다.

우리나라 시설채소는 어려운 농업여건속에서도 이제까지의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80년대 중반이후 채소류 재배면적은 약간씩 줄고 있으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상업농시대에 알맞는 기술집약적 생산의 대표적 형태로써 80년에 1만 7천 9백 ha에서 92년말 현재 5만 1백 ha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민 1인당 소비량도 시설채소는 연평균 15.9%씩 증가하고 있어서 시설재배 채소는 국민 식생활속에 착실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설채소의 소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품종개량, 시설구조, 환경조절장비, 자재, 재배기술, 유통 등 전반적인 면에서 기술적 저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처한 역사적 현실과 그동안 추진해온 농업정책에 강력히 결부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GATT 국제수지조항을 졸업하는 97년에는 대부분의 시설채소들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사실앞에 국내 시설채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하히 대처해야 하며 시설 채소 발전의 축을 어떻게 세우고 어느 기간동안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하는가는 아직 해답이 나오질 않고 있다.

시설채소 농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주산단지 중심으로 종합 유통시설지원, 시설자재의 표준화, 규격화, 및 표준 모델 보급으로 단계적인 시설 현대화 추진, 유기농법 및 양액재배 기술의 개발 보급, 지역단위의 공동 퇴비장 건설, 그리고 농촌 진흥청과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연구지도 등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불투명한 점이 많고, 어떤 부분은 매우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로서 주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대다수농민들은 지금까지의 일관성없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다. 여하튼 시설농업의 진흥은 국가적 과제이며 진흥을 외면한 길은 갈 수가 없다.

시설원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다양한 양질의 채소를 적절한 가격으로 주년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시설채소농업의 발전전망은 농민, 정부, 농업관련단체, 그리고 연구자들의 합의결정에 달려있으며 그 결정내용은 내수충족은 물론 수입개방대응과 수출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자극을 받을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설원예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 시설원예발전에 대한 단·장기국가목표의 확실한 설정

시설원예는 다양하고 안전한 양질의 원예작물을 주년생산하는 것이다. 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목표와 발전방향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실천해나가야 한다.

2. 시설원예에 관한 연구, 개발 교육체제의 정비

첨단시설원예에 관한 연구강화없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교육의 합리화에 대해서도 방법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야한다.

3.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의 재편

현재와 같이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지선정이나 육성시책은 인접소비지나 지역여건 및 특수목표 등을 감안해서 재편되어야 한다.

4. 시설의 구조개선의 재검토

원예시설에는 플라스틱하우스와 유리온실 두가지가 있다. 합리적인 시설구조의 선택 사안이 다양해야 하며 농민자유의사가 존중되어야하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5. 환경조절기술의 개발

작물생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조절기술을 생력화, 자동화와 연결시켜 저비용·고품질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6. 작목중심의 종합적인 시설원예 육성추진

작목중심으로 종자개량부터 파종, 육묘, 육성, 재배system, 시비관리, 환경관리의 자동화, 병해방제, 수확, 선별, 포장 및 유통 등 일련의 과정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영농개념을 도입 실현해야 한다.

7. 양액재배 기술개발 및 확대적용

시설원예기술의 최종도달점은 유리온실내에서의 양액재배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일천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소극적인 육성책은 장래의 시설원예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8. 시설원에 자재개발의 활성화

시설원에 운용에 관련된 다양한 자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좋은 자재없이 시설원예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구조와 형태, 기능 및 특수목적에 맞는 다양한 자재가 저가로 공급되는 것이 시급하고 유통과 관련된 자재(상품화자재)개발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9. 첨단기술의 도입 및 개발

우리가 목표로하는 원예작물생산에 도입적용 가능한 세계적인 기술의 도입으로 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타진하고, 그 기술의 개량, 기존기술과의 접목 또는 신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과 동시에 우리기술의 자체개발도 강화해야 한다.

10. 정보수집, 분석, 전파 및 홍보강화

시설원예에 대한 기술정보, 경영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분석 및 전파가 시급하고 시설원예생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홍보와 산지소개 등 홍보차우언에서의 노력이 시급하다.